“불교미술사 쉽게 알고 싶다면 석굴이 찾아주세요”

불교 크리에이터를 만나다 - 석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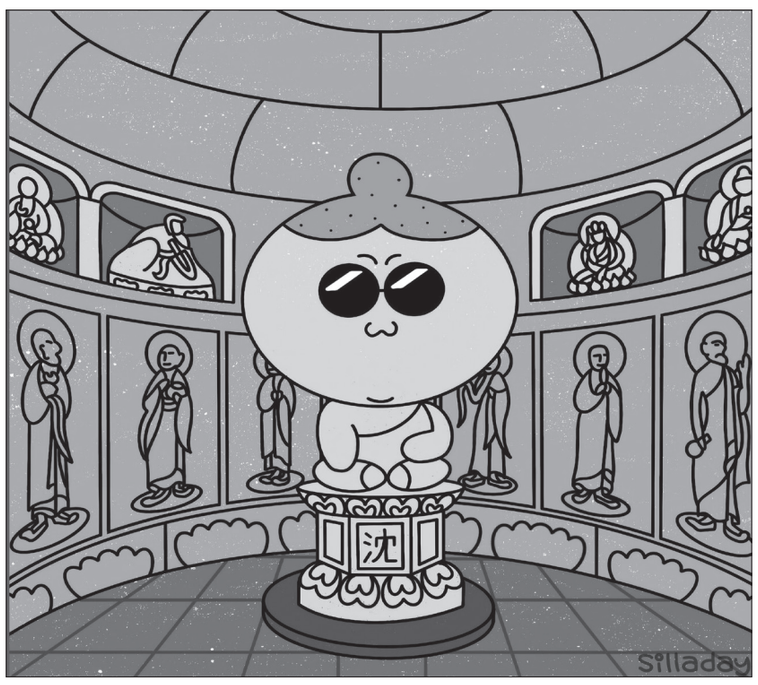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석굴암 본존불은 주실에 근엄하게 앉아 있다. 하지만 그 뒷면을 본 적이 있는가. 앞면보다는 단순하게 조성돼 있는데 이유는 “어차피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앞모습에 집중하고 뒷모습을 생략하는 점은 우리나라 고대 불교 조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징”이라고 한다.

이처럼 한국불교미술사의 깨알 같은 지식과 알아 두면 쓸모 있는 상식들을 전하는 불교 크리에이터가 있다. 바로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는 ‘석굴이’(instagram.com/silladay)다. 3월 12일 현재 62개의 게시물이 업로드된 혜성 같이 등장한 신인이지만 담고 있는 내용들은 체계적이고 단단하다. 그렇다고 어렵지는 않다.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카툰 형식으로 이야기와 정보를 전하고 있다.

3월 7일 서울 조계사에서 만난 석굴이(본명 심희진) 작가는 “불교조각으로 미술사학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전공을 살릴 방법을 고민하다가 미술사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면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실행력이 좋은 편이라 바로 캐릭터 제작에 들어갔고 ‘석굴이’가 탄생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생은 불교미술사학도
부캐는 인스타 ‘석굴이’
전공 연계 고민하던 중
크리에이터 도전 결심해
“韓미술사 쉽게 전할 것”



석굴이 작가의 석사학위 논문은 ‘삼국 시대 반가사유상 좌구 연구’로 반가사유상 좌구의 형성과 변화 과정을 상의 구조와 의미적인 면에서 조명했다. MZ세대 미술사학도가 직접 내용을 설명하는 ‘인스타툰’을 제작하니 시대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가 제작될 수 있었다. 최근 업로드한 석굴암 본존불 뒷모습, 진관사 태극기 콘텐츠 등은 4000~5000여 개의 ‘좋아요’를 받았다. 인스타그램과 스레드의 성장세도 뚜렷하다. 지난해 하반기에 시작한 두 플랫폼의 팔로워 수는 1300~1400여 명에 이른다.

석굴이 작가는 “최근 진관사 태극기 관련 인스타툰이 대중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 좀 얼떨떨했다”며 “사실 인스타툰은 ‘될 때까지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예상보다 사람들이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공은 반가사유상인데, 부캐 디자인을 왜 석굴암 본존불로 했냐”는 질문에 석굴이 작가는 “캐릭터의 행동력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반가사유상은 그 자체가 형식이어서 사유수인을 취하고 있다. 저는 캐릭터가 자유롭게 활동했으면 좋겠는데 사유수인을 하지 않으면 반가사유상이라고 할 수 없게 된다”면서 “무슨 자세를 해도 무방한 석굴암 본존불을 모티프로 삼게 됐다”고 설명했다.

콘텐츠 관련 아이디어는 전공 지식과 일상에서 비롯된다. 그는 “자주 보는 전공 서적, 친구와의 대화, 지나가다 보이는 물건 등 일단 떠오르는 아이디어는 바로 메모해 놓는다”며 “하나의 주제가 정해지면 제목과 콘티를 먼저 만들고 이야기 흐름이 쉽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문장을 여러 번 수정한다. 그림은 마지막에 그리는데, 콘티를 짜며 이미 생각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림 자체는 빠르게 그려낸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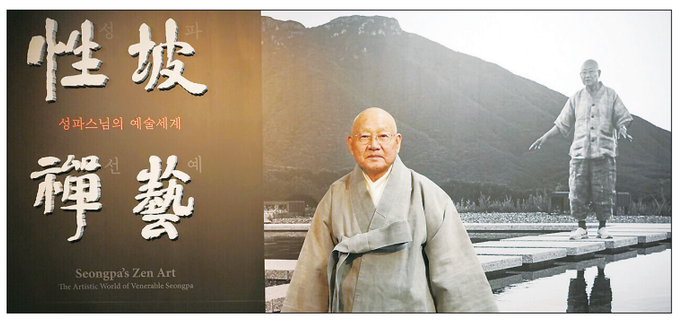
그림들의 퀄리티가 좋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있냐” 묻자 “체계적으로 배운 적은 없으나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서 유튜브 등을 보면서 태블릿 등의 기본적인 사용법을 익혔다.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표현이 있다면 그때 그때 검색해서 배우고 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석굴이 작가는 콘텐츠들을 쌓아 책을 만들고 관련 굿즈를 제작하고 싶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나아가 자신이 제작한 콘텐츠들로 우리나라 불교문화유산들이 더 많이 이야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석굴이 작가는 “계정 운영이 반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아 현재는 콘텐츠의 기본적 틀을 잡아가고 있다”면서 “애초 생각했던 미술사 기초 라인업을 세우고, 주요 내용인 불교미술사를 우리나라 미술사 전반과 함께 다루려 한다. 현재로 여러 시행착오를 하는 중이라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기회가 된다면 석굴이 캐릭터를 살리고 그 속에 미술사 콘텐츠를 같이 담아낸 굿즈와 도서를 제작하고 싶다”면서 “무엇보다 제가 올린 콘텐츠를 계기로 우리나라 불교문화유산이 더 많은 분야에서 이야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성파 대종사 수행·예술, 강의로 만난다

경기도박물관 박물관대학
‘성파선예’展 연계 강의
5월 7일엔 스님과 대화도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가 2월 9일 열린 경기도박물관 개관 30주년 기념 특별전 ‘성파선예(性坡禪藝): 성파 스님의 예술세계’ 기자정담회에 앞서 진행된 라운딩에서 사진촬영에 응하고 있다.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의 수행과 예술 세계를 강의를 통해 만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박물관(관장 박본수)은 “3월 12일부터 ‘2026 경기도박물관 박물관대학(인문학 강좌)’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박물관 박물관대학(인문학 강좌)은 매년 역사·문화와 관련한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해 진행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올해에는 현재 전시 중인 특별전 ‘성파선예(性坡禪藝): 성파 스님의 예술세계’와 연계해 열린다.

‘성파 스님의 수행과 예술 – 일하며 공부하며, 공부하며 일하며’를 주제로 마련된 이번 강좌에서는 성파 스님의 예술세계를 수행과 창작, 미술 재료의 탐구, 참선과 다도, 전시 공간과 작품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예정이다.

3월과 4월에 각각 2회씩 열리는 특강에는 △김한수 조선일보 종교전문 기자의 ‘성파 스님의 수행과 창작: 일하며 공부하며, 공부하며 일하며’(3월 12일) △정종미 한국화가의 ‘성파, 통도 그리고 우리 그림’(3월 26일) △노성환 울산대 명예교수의 ‘성파 스님의 다락방’(4월 9일) △윤재갑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감독의 ‘성파선예관 건축과 개관전을 준비하며’(4월 23일)가 진행된다. 5월 7일에는 금강 스님(중앙승가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성파 스님과의 대화가 예정돼 있다.

강좌는 3월 12일부터 5월 7일까지 매달 둘째·넷째 목요일 오후 2시 경기도박물관 뮤지엄아트홀에서 열리며, 수강료는 무료다. 접수는 온라인(지지씨멤버스)과 오프라인(전화·방문·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중일 기자

기차로 만나는 호남선 템플스테이

문화사업단 · 코레일관광개발
‘봄맞이 테마 기차여행’ 운영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일화 스님, 이하 문화사업단)이 ‘2026년 봄맞이 템플스테이 테마 기차여행’을 운영한다.

문화사업단과 코레일관광개발이 운영하는 특별열차를 타고 떠나는 봄맞이 템플스테이 테마 기차여행은 각 지역의 전통시장, 관광지와 연계해 3월 29일 호남선 코스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더불어 4월 12일 중앙선 코스도 운영될 예정이다.

3월 29일 호남선을 타고 떠나는 템플스테이 테마 기차여행은 반야사(충북 영동), 신안사(충남 금산), 지장정사(충남 논산), 무량사(충남 부여), 내소사(전북 부안), 선운사(전북 고창) 등 총 6개 사찰을 연계·진행한다.

문화사업단은 “앞으로도 계절별 템플스테이 기차여행을 비롯해 많은 국민이 바쁜 일상 속에서 쉼표를 찾아 쉬어 갈 수 있도록 힐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동국대 WISE캠, ‘인도 교류 사진전’

3월 20일까지 갤러리백상서



동국대 WISE캠퍼스(총장 류완하)가 건학 120주년을 기념해 ‘인도 문화교류 학술탐방 사진전’을 개막했다.〈사진〉

이번 전시는 지난 1월 20일부터 11일간 진행된 ‘인도 문화교류 학술탐방’의 성과를 학내 구성원과 지역사회에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전시에는 델리, 바라나시, 보드가야, 쿠시나가르 등 불교 성지 순례와 현지 학교에서 펼친 한국문화 소개 및 봉사활동 모습을 담은 사진 40여 점과 영상 3편이 소개된다.

류완하 총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사진전은 학생들이 교육 현장에서 건학이념을 직접 실천한 의미 있는 기록”이라고 밝혔다.

사진전은 동국대 WISE캠퍼스 도서관 2층 갤러리백상에서 3월 20일까지 열린다.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이기심을 버리라는 말은 틀렸다”
문제는 욕망이 아니다

욕망을 없애지 말고, 깨어 있으라

라오스 숲속 사찰에서 수행 중인 쿠바 탐디 스님은
자신을 “이기심을 안고 사는 수행자”라고 고백한다.
이 책은 욕망을 억누르라는 대신,
통찰하라고 말하는 인문 수행서다.

나는 이기적 스님이다
쿠바 탐디 | 400쪽 | 23,000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25년간 청년들을 만나며 그들의 오늘의 삶을 고민해 왔다. 자유를 찾아 욕망이 지배하는 도시를 떠나 라오스 푸딘댕청소년센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냈고 출가한 수행자이지만 여전히 갈애와 집착, 어리석음을 안고 사는 한 인간이다. 홀로 서는 자유를 꿈꾸며 출가했으나 인간은 끝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배웠다. 삶의 진실은 세상에서 벗어난 곳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현실의 한복판에 있었다. 완성된 스님이 아니라, 길 위에 선 초보 수행자로서 수행의 길을 걷는 중이다.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